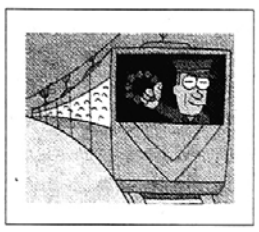
생활속의 보살행 정토 가꾼다



현대불교 캠페인 '작은 실천 큰 기쁨' 반응

남모르는 자비행 발굴 생생히 전달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삶' 확산

본사가 연중기획으로 매주 1면에 게재해 온 '작은 실천 큰 기쁨'은 남몰래 자비행을 실천하는 불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자비실천행의 확산을 도운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불자의 선행이 소개되면서 그로 인해 또다른 선행을 발심하는 불자들이 본사로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고,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점심을 굶는 결식학생들에게 몰래 도시락을 전달하는 서울 옥수복지관 효인스님의 숨은 이야기(196호)가 보도된 후 교계복지관을 중심으로 결식학생을 돕기위한 일대일 결연맺기, 도시락 후원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기도 했다. 노인들에게 생선공양을 해 온 최세영씨의 보시행(165호) 덕분에 강원도 속초복지관 은빛노인대학은 지역노인복지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JTS 북한 나진-선봉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를 후원하는 양윤덕씨(178호)는 보도이후 동참자들이 더욱 늘어 현재까지 나진지역의 10개 탁아소를 후원하고 있다.

염주를 직접 만들어 군부대와 복지시설 등지서 포교활동을 해 온 지하철 기관사 강부동씨(197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서 재소자 포교 활동중인 동방불교대학 홍성북차장에게 염주만드는 법을 전수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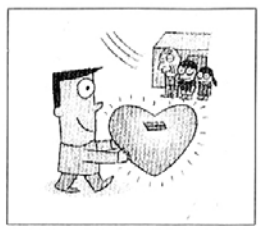
노인실직자에 100원짜리 곰탕을 파는 추이자씨(190호)는 "요즘들어 노인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실직자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또 찬불가 테잎을 직접 제작해 장애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전달해 온 경남 밀양의 최대혜심보살(198호)은 보도 이후 함양 보문사 스님과 신도들이 찾아와 찬불가 합창을 지도 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았다.

이밖에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강중남씨 부부(179호)는 보도 후 "주변 사람들이 남은 야채를 더 많이 모아줘서 자광원을 비롯 보다 많은 복지시설에 부식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해 왔으며, 임종전 유언으로 자신의 시신을 의학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평소 소신대로 고려대 의대에 기증한 청련화보살(181호) 보도이후 유족들이 "고인의 거룩한 뜻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됐다"며 감사의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

보시통장을 만들어 불우이웃, 복지시설을 돕는 헤어디자이너스클럽 전상섭원장(186호)은 보도가 나간 후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곤란을 겪기도 했다.

이렇게 경제한파로 황량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던 '작은 실천 큰 기쁨'의 주인공들은 지금도 자신의 생활현장에서 이웃의 아픔을 온몸으로 함께 나누며 살맛나는 정토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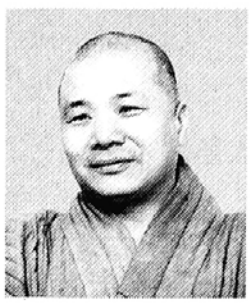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 '작은 실천 큰 기쁨'을 읽고 ●

"작은 선 쌓여 화엄세계 이뤄"

길상사 선원장 지묵스님



옛 말씀에, 비록 작은 선(善)일지라도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 또한 비록 작은 악(惡)일지라도 작다고 해서 우습게 여겨서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한번에 큰 일을 해치우려고만 벼르다가는 결코 어떤 일도 이뤄내기 어렵다는 교훈이다.

작은 꽃, 이름없는 들꽃이 가득찬 세상은 아름답다. 반드시 화려하고 큰 꽃송이일 필요는 없다. 푸르고 누르고 붉은 꽃들이 가득 찬 봄산과 들은 화엄의 세계 .

세상 구석에서 선근(善根)을 심고 가꾸는 작은 보살의 손길은 비록 조그마한 데서 출발하였으나 이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에서 다섯으로, 열 백 천으로 확산되어 화엄의 세계를 이룬다. 미담은 또 미담을 낳고, 선근은 또 선근을 심기 때문이다.

그러나 얻었다 한들 본래 있었던 것이며 잃었다 한들 본래 없었던 것이라는 본래 공(空)한 도리를 잃는다면 아만과 제 고집만을 낳는다. 선을 행한 즉시 선까지 버려야 선행이다.

선을 행하는 데 습관이 안되어 잘 안된다는 이들이 있다. 작은 실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작은 이웃의 미담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다면 다행이겠다. 작은데서부터 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처음이 어렵다.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 자비보살의 훈훈한 인정을 느낄 때마다 '세상은 착한 이가 더 많다'는 걸 확인한다.

영주 관음사서 또 훼불

한밤중 괴한 침입
불상 · 목탁 등 부숴

훼불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북 영주시 이산면 관음사(주지 도기) 원통전에 16일 새벽 괴한이 침입, 불상과 목탁 등을 파괴하는 훼불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범인은 특수유리 속에 봉안된 관세음보살상을 망치로 눈 부분을 중점적으로 훼손했다. 또 원통전의 심우도를 훼손하고 목탁과 석탑안에 모셔진 석불 2기를 부수기도 했다. 특히 범인은 원통전에 봉안돼 있던 청동 관세음보살상을 훔쳐 사찰에서 50여m 떨어진 주차장 하수구에 버리고 달아났다. 이 청동 관세음보살상은 머리부분이 부서지고 어깨와 팔이 떨어져 나가는 등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채 발견됐다.

관음사 주지 도기스님은 "올해 영주시가 추진중인 시영 납골당 건립과 관련 관음사가 사찰 소유 토지 3백50여평을 무상 기증하고 납골당이 들어설 지역민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돌린 데 앙심을 품은 일부 지역민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범인이 남긴 것으로 파악된 방석의 발자국과 사건발생 시간인 16일 새벽 1시경 흰색 트럭이 절 입구에 있었다는 주민의 증언에 따라 평소 납골당 건립을 반대해 온 지역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주 관음사에 16일 괴한이 침입 관세음보살상의 눈 부분을 훼손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부여군 유적지 관리
새해부터 민간 위탁

부여군은 구조조정 등으로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관내 주요 문화유적 및 사적지에 대한 단순업무를 내년 1월1일부터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사적관리요원은 당초 사무실 직원을 포함, 부소산성 9명, 능산리고분군 5명, 정림사지 · 궁남지 등 기능직 · 일용직 등 38명이 근무해 왔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10명의 요원이 감축돼 인원 부족현상을 겪고 있었다.

군은 이달초 민간위탁 대상사적지 부소산성부설 관광주차장, 능산리 고분군 관람료 · 주차료 · 매점, 정림사지 관람 · 주차료 등 3건에 대한 입찰을 통해 총 1억3천9백30만원으로 민간 징수 위탁관리업자를 선정, 내년부터 위탁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건봉사 통일관광지 조성

호국영령 위패관 · 사명대사비 · 전시관 등 건립

금강산 건봉사가 통일안보 관광단지로 조성된다.

고성군에 따르면 건봉사 통일안보 관광단지는 내년부터 1차사업으로 7억여원을 들여 6 · 25이후 조국수호를 위해 산화한 군장병 1백77명과 무명용사 등 건봉사에 안치된 호국영령 1천2백30여명의 위패봉안관을 마련한다.

또 임진난때 승의군을 모집, 봉기한 사명대사 기적비 복원과 수련원, 전적공원 및 전시관 등도 2007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중근 기자

외국인 근로자의 밤

통도사부산포교원 국제포교부(회장 이건웅)는 20일 법당에서 동남아 노동자를 위한 밤 행사를 열었다.

동남아 근로자 1백50명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한 이날 행사는 각 나라별 노래와 춤 등 장기자랑 순서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갑사 18세기 탱화 도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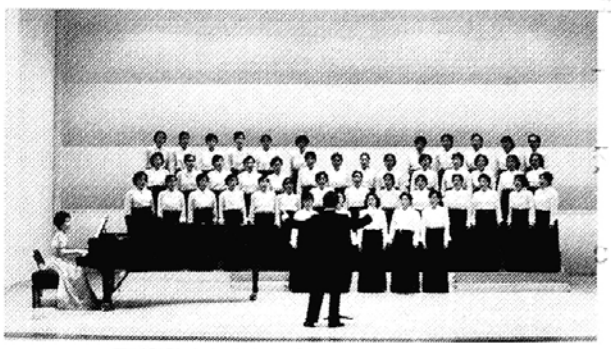
21일 오전 3시께 충남 공주시 계룡산 갑사 대웅전에서 후불탱화 1점이 도난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갑사 경비원 이모씨에 따르면 이날 새벽 경내를 순찰하던 중 대웅전 옆문 자물쇠가 풀려 있어 확인해 보니 후불탱화 아래위가 정교하게 잘린 채 없어졌다는 것이다.

도난당한 후불탱화는 세폭으로 이루어진 삼불회탱화 가운데 약사회상도로 가로 3m, 세로 5m 크기의 18세기 초반 작품이다. 문화재 지정은 안돼 있으나 제작 연대가 오래됐고 갑사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던 작품이어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불탱화는 모두 세폭으로 영산회상도 아미타회상도 약사회상도로 이루어져있다.

경찰은 범인이 대웅전에 설치돼 있던 보안용 열감지기에 껌을 붙여 작동이 안되도록 한 점 등으로 미뤄 문화재 전문 털이범의 소행으로 보고 고미술상 등을 상대로 유통경로를 추적 중이다.

강지연 기자



◇금강합창단이 결식아동을 돕기위해 연 자선음악회.

진각종 금강합창단 결식아동돕기 음악회

진각종 금강합창단(단장 명선각)은 18일 대구 서구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결식아동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창단 10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김해경씨와 금강합창단 사물놀이팀이 특별출연했으며 임익선의 지휘로 찬불가 가곡 민요 등 20여곡이 선보였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사찰앞 러브모텔 철회

울산 동구 방어동 관음사(주지 혜원) 앞 여관건립과 관련해 마찰을 빚어온 송인국 시의원이 22일 여관건립계획을 전격 철회했다.(203호 22면 참조)

송의원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여관 등 생활근린시설을 신축하려 했으나 신도와 주민들의 반발로 현직 시의원의 신분으로서는 더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중근 기자

불우이웃에 생계비 전달

대구 달성군 사암연합회(회장 인호 · 장원사주지)는 18일 관내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등 10여 가정을 방문, 총 1백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윤호 기자

고침 본지 202호 5면 '청불회 수련회' 기사중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을 '봉선사 회주 월운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구도 행장기

최초발굴

꽃(花)으로 태어나
꽃(華)이 된 존재, 비구니 스님

화엄경(華嚴經)은 세상 혹은 우주를 꽃으로 장식하기를 권하고 가르치는 경전이다. 꽃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한자에서는 가시적인 꽃을 화(花)로 나타내고, 비가시적인 꽃을 화(華)로 나타낸다. 두 꽃은 모두 아름답고 곱고 예쁘고 향기롭고 값진 것이지만, 뜻하는 바는 사뭇 다르다. 비구니 스님들은 꽃(花)으로 태어나 꽃(華)이 된 존재들이다.
한승원 '후기' 중에서

본래 마음자리를 밝히는 수행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전법자로서, 절을 일구고 지키는 가람 수호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당당한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비구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렸던 것이다. 다소 흐트러졌던 수행자들은 이 책에 실린 선학(先學) 스님들의 삶을 지남(指南)으로 삼아 추스리고, 아직 불교와 인연이 닿지 않은 이들은 이 책을 읽고 발심의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생각한다.
광우스님 '추천의 글' 중에서

이 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살다가신 비구니 큰스님들을 다시 뵙고 가르침을 듣게 해주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작업은 모래를 헤쳐 금을 찾는데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온 정성을 다 기울였음을 볼 수 있다. 기록되어 전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문하생들을 일일이 발로 찾아다니며 접할 수 있었던 모습들이었기 때문이다.
해주스님 '출간에 부쳐' 중에서

한·국·불·교·를·빛·낸·근·세·비·구·니

깨달음의 꽃

하춘생 지음 | 도서출판 여래 | 296쪽 | 값 7,800원

도서출판 여래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1가 177번지 대영빌딩 201호 · 전화 (02)730-8976 · 팩스 (02)723-6801

"말없이, 틈없이, 끝없이 정진합시다"

선 농 회 안 내

안거
○ 춘: 결제 (음) 2月 1日 ~ 해제 (음) 4月 1日
○ 하: 결제 (음) 4月15日 ~ 해제 (음) 7月15日
○ 추: 결제 (음) 8月 1日 ~ 해제 (음) 10月 1日
○ 동: 결제 (음) 10月15日 ~ 해제 (음) 1月15日

백일기도
○ 춘: 동 안거 해제일 ~ 하 안거 결제일
○ 하: 하 안거 결제일 ~ 하 안거 해제일
○ 추: 하 안거 해제일 ~ 동 안거 결제일
○ 동: 동 안거 결제일 ~ 동 안거 해제일

법회
육바라밀법회
· 보 시 (月): 초 발심
· 지 계 (火): 화엄경
· 인 욕 (水): 법화경
· 정 진 (木): 선어록
· 선 정 (金): 금 강경
· 반 야 (土): 철야정진

정기법회
· 월요법회: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특별법회: 신상 애상 강변 야외
· 초하루법회: (음) 1日 오전 10시
· 약사재일: (음) 8日 오전 10시
· 지장재일: (음) 18日 오전 10시
· 관음재일: (음) 24日 오전 10시

※ (오후반 2시 · 저녁반 7시)

• 경 제: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대중에게 알리고 스스로 지킵시다.
• 방 부: 본방 대참 중심으로 하고, 출입 자재는 별도로 합니다.
• 기도시간: 새벽 4시 / 오전 10시 / 오후 2시 / 저녁 7시
• 운 력: 일이 있으면 힘을 하고, 일상생활에 들어 갑니다.
• 기타사항: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처리합니다.

송금계좌: 우체국 농선회 102095-0003495
문의전화: (02) 발명선원 922-1101 · 선농회 922-0921
농선암 363-9626 (FAX) 936-191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0기 佛敎儀式(범음 · 범 패) 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 정규과정(1년제) 추가모집
● 의식전문법사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과정)
◆ 원서접수 : 1998년 12월 14일(토) ~ 99년 1월 11일
◆ 개강일시 : 1999년 1월 12일 오후 5시 정각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극장 옆 경동빌딩 3층
☎ (02) 741-0495, 0496
해동불교 범음대학
海東佛敎儀式敎育院